



[美 대선이후 산업 향방] 누가 당선되든 脫중국 가속 불확실성 대응해야 03



Economy

코스피	2267.15 (0.00)	코스닥	792.65 (0.00)
금리 (미국 3년)	0.935 (+0.008)	환율 (원-달러)	1135.10 (+3.70) (10.30)

올 서울 아파트값 9.09% 고공상승 보유세 강화 등 정부대책 효과 주목

뉴메트로 5주년 기업과 함께 한 5년, 함께 할 50년

2부. 포스트 코로나

6 넘치는 유동성의 끝은? <下> 부동산 시장

저금리·풍부한 유동성에 부동산 균분... 집값 영향

KB금융그룹 '부자 보고서' 80% 거주외 부동산 소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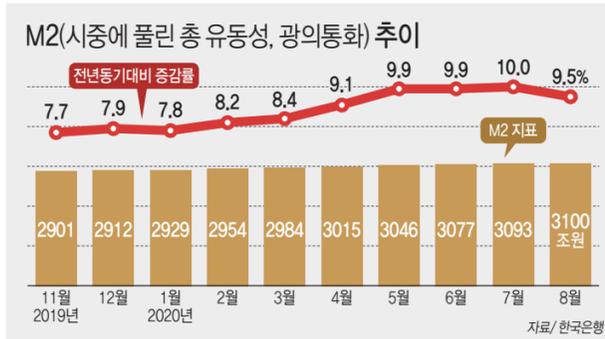
저금리 현상과 함께 풍부한 유동성은 집값에 영향을 주며 부동산시장의 균분이 되고 있다. 대출규제 등 유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집값은 쉽게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 집값 상승세가 꺾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 올려 보유세를 높일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서울 집값, 유동성 줄어도 '강보합세'

1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9.09% 올라 지난해 연간 2.91% 보다 3배 이상 급상승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할 때 서울 아파트값은 7년째 장기상승 레이스를 이어가게 된다.

서울 아파트값은 M2(시중에 풀린 총 유동성, 광의통화)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M2는 3100조 원으로 3000조를 훌쩍 뛰어 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에도 대도시 주택시장은 유동성이 영향을 많이 줄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 뿐만 아니라 투자재의 성격인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로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의 '한국 부자(富者)'들은 대부분 거주외 투자 상품으로 일반아파트와 상가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KB금융그룹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부자 가운데 80%가 거주외 부동산을 갖고 있었다. 상가(44.3%), 일반아파트(41.5%), 토지·임야(39.0%) 순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금융자산 30억원 미만 부자의 경우 일반 아파트(37.4%)를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면에 계속>

/정연우 기자 ywi964@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제5회 뉴테크놀로지포럼'

'AI+빅데이터' 트렌드 공유

2016년 3월 이세돌 9단과 구글의 AI '알파고' 간의 바둑대결에서 알파고가 4승 1패로 승리를 거둔 역사적인 사건 이후,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AI에 주목하며 많은 기업들이 사업에 뛰어 들었습니다.

4년 여가 지난 올해, 미국의 오픈에이아이 개발한 AI 언어 모델인 'GPT-3'는 아직 AI가 '내로우 AI' 수준에 그치는 상황에서 '제너럴 AI'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논의를 만들어낼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선보여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AI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양질의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만큼, 정부는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이터 댐' 사업이 주축인 '디지털 뉴딜' 정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AI의 원유'로 불릴 정도로, AI의 성능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데이터 학습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정부는 올해 '데이터댐'에만 추정 예산 5000억원이 투자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크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양질의 데이터와 결합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최신 트렌드를 살펴보고, 대표 IT 기업들은 AI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지 등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는 이미 지난 1~2회(2016~2017년) 뉴테크놀로지포럼을 통해 'AI 시대의 도래를 발빠르게 예견했으며, 지난해 개최된 4회 포럼도 '일상 속으로 들어온 인공지능(AI)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도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독려 바랍니다.

- 주제: 빅데이터를 품은 인공지능(AI)
- 일시: 2020년 11월25일(수) 14:00~17:00
- 장소: 서울 중구 청파로 464번지 LW컨벤션센터 컨벤션홀
- 주최: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기조강연: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경희대 빅데이터연구센터장·비즈니스모델연구소장)
- 강연 1: 이경일 솔트룩스 CEO
- 강연 2: KT 정영조 마스터
- 등록: 사전등록, 홈페이지 접수(www.metroseoul.co.kr)
- 접속: 참가 신청자 이메일로 개별공지
- 문의: 제5회 뉴테크놀로지포럼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 ※위 일정 및 후원, 강연자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늦가을 정취

서울지역에 비가 내린 1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시민이 우산을 쓰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51주년 '뉴삼성' 조용한 혁명 속도

이재용 체제 첫 창립기념일 오늘 51주년 기념행사 진행 코로나19 등 고려해 간소화

삼성전자가 51주년을 맞았다. 이재용 부회장 체제로 접어든 후 첫 기념일로, '뉴삼성'을 향한 행보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11월 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일 51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당초 기념일이 휴일이면 이전에 행사를 열었지만, 올해에는 고(故) 이근희 회장 장례와 삼우제 등으로 일정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 두번째)이 ASML 장비 생산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삼성전자

미루게 됐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등을 고려해 간소하게 치를 것으로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 부회장이 지난해 이례적으로 발표했던 메시지에 다시 한번 관심이 집중된다. 이 부회장은 당시 "다가올 50년을 준비해 미래 세대에 물려줄 100년 기업이 되자"고 당부하며 '뉴삼성'을 위한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바 있다.

고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면서 단독 경영 체제가 확고해진 상황, 이 부회장은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경영 행보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3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

靑 일자리수석에 임서정 기용

12개 차관급 인사 단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김강립 행안부 재난관리본부장 김희겸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일자리수석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을 내정하는 등 12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관련기사 4면>

행정안전부 재난관리본부장 임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장에 민병찬 국립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장, 소방청장에 신일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 기

상청장에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보건복지부 1차관에 양성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고용노동부 차관에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이 발탁됐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는 박진규 전 청와대 신남방·신북방비서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도규상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국토교통부 1차관에 윤성원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 각각 내정되는 등 청와대 비서관 출신 인사들이 대거 기용됐다.

조달청장에는 김정우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내정됐다.

/이현진 기자 lhj@